

<목차>

[세션 3-URL1]

고등교육

▣ 대학생이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가성비 구조 탐색:

기대 성과, 비용, 만족을 중심으로 1

발표: 변수연(부산외대 교수), 배상훈(성균관대 교수), 이수정(세종대 교수)

▣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25

발표: 민병현(청운대 교수), 김훈호(공주대 교수)

대학생이 생각하는 대학교육의 가성비 구조 탐색: 기대 성과, 비용, 만족을 중심으로

변수연(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¹⁾

이수정(세종대학교 교수)

배상훈(성균관대학교 교수)

I. 서론

오늘날 한국에서의 대학교육²⁾은 뚜렷한 보편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을 꼭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 질문을 하는 청년층도 많지만, 학령인구의 70% 가량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대학졸업장이 없다는 사실은 노동시장 진출에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대다수 동년배들이 당연히 대학에 가는 상황에서 굳이 대학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특별한 설명을 요구하며, 남다른 선택을 한 것에 대한 ‘엄혹한 선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김희삼·이삼호, 2008). 때문에 대학교육이 일부 엘리트집단을 배출하던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의 시절을 뒤로 하고, 지식기반사회의 민주시민이자 숙련된 노동자를 육성하는 기초교육, 즉 국가가 책임지는 성인 및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박정원, 2022; Jongbloed, 2003; Shin & Harman, 2009)

그러나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많은 기회를 안겨 주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대학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를 급속도로 떨어지는 결과도 가져왔다. 2021학년도 입시에서 나타난 전국적인 신입생 미충원 현상이나 증가하는 중도탈락률 모두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가지는 가치가 고도성장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의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이다. 즉, 대졸 노동자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대학의 졸업장이 고임금의 기본조건으로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 반면 모두가 원하면

1) 교신저자: sybyoun@bufs.ac.kr

2) ‘대학교육’이라는 용어보다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혹은 post-secondary education)’이 연구자들 사이에는 더 널리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령인구의 절대 다수가 진학하는 4년제 종합대학교 학부교육의 가치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이라는 용어 대신 ‘대학교육’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고등교육은 중등교육 이후 대학원 교육까지 포괄하는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문맥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고등교육을 대학교육의 유의어로 사용하였다.

대학을 가고, 대졸자가 선택하는 진로와 직업의 유형이 엄청나게 다양화된 오늘날에는 대학교육의 소비자로서 학생과 학부모가 사용 경험을 통해 부여하는 보다 주관적인 가치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현실세계에서의 유사한 영역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대학교육의 가성비가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학업지속 의사(김경희, 2011), 나아가 후배들에게 자신의 학교를 추천하거나 대학에 대한 기부활동(양지인·박윤미, 2018; 차영란, 2010) 등에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성비’는 단순히 대학교육의 질이나 가격만으로 측정할 수 있는 1차원적 개념이 아니다. ‘가격 대비 성능의 비’의 줄임말인 ‘가성비’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비해 서비스나 제품의 성능이 고객이나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네이버 지식백과)로, 가격과 만족도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다. 김난도 외(2016)는 20대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가성비와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브랜드의 이미지에만 매달리던 ‘사치의 시대’가 가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가치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4년이라는 긴 시간과 상당한 액수의 등록금, 그리고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시간적·물적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본다면 20대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가성비를 따지면서 중도탈락이나 편입, 취업 등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의 가성비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한국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에 요구하는 핵심 성과는 무엇인가?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대학교육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함께 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또한 이러한 대학교육의 가성비 구조는 한국의 엄격한 대학서열구조의 각 층위에 유사하게 작동하는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소비자주의(consumerism)의 시각에서 대학교육의 가성비 구조에 대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려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교육에서의 소비자 만족 개념

교육은 대표적인 서비스이고, 그 중 대학교육은 가장 다양하고 복잡한 성질의 휴먼서비스들의 총체이다. 대학교육의 소비자인 대학생들은 캠퍼스의 위치와 내부의 물리적 환경에서 시작하여 교수와 동료 학생들 같은 인적환경, 강의실 안팎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경험 등에 이르기까지 복합적 환경으로부터 매우 강도높고 비구조적이며 상호작용적인, 불확실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Strange & Banning, 2009; Ng & Forbes, 2009). 다른 서비스에 대한 소비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의 교육서비스 소비는 본질적으로 경험적이고 현상학적인 성질을 갖는다 (Vargo & Lusch, 2008). 때문에 최근 들어 각국 정부나 대학들이 대학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지표 중 하나로 학생만족도(student satisfaction)를 선택하는 경우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영국과 같이 대학등록금제도의 도입 이후 학생들의 소비자주의(consumerism)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학들이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가 대학과 학생 모두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Douglas, Douglas & Barnes, 2006). 고등교육분야 내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높은 등록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미국 등에서도 개별 강의나 교육서비스 전체에 대한 학생만족도는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대학에서의 강의평가나 교육만족도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연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러한 교육만족도에 대한 기관과 연구자들의 관심은 주로 ‘대학의 어떤 환경적 요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할 것인가’(박용석, 2010; 신소영·권성연, 2013)와 ‘어떤 특징이나 조건을 가진 학생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는가(신소영·권성연, 2014; 김은영·방상욱, 2022)’, 또 ‘교육만족도가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나 교수학습성과, 졸업 후 직업활동 등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는가’(이길재·이정미, 2015; 송운정·조규판, 2016; 권혁기·김병주, 2021) 등에 집중되어 왔다. 개별 대학 내의 교육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이러한 학술적 노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대학교육 만족도와 충성도(loyalty) 간의 복잡한 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다소 단순한 신념을 전제하고 있다. 즉, 교육만족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교육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면 학생은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분석 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른 서비스 소비와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에서도 학생의 이탈은 단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소비자 만족 결정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소비자 만족이 ‘직접적 경험’을 통한 주관적 평가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심리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기제, 즉, 이용 전의 기대나 목표, 그것과 실제 경험과의 불일치, 이 과정에서 느끼는 공정성이나 기타 감정의 역동 등이 만족도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그 서비스를 재구매하려는 의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김미라·황덕순, 2004). 또한 한국처럼 대학이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특수한 환경에서는 소비자로서의 대학생의 만족도가 대학의 교육서비스 밖의 외부요소들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을 고비용·장기간의 투자를 요구하는 대학교육에 적용해 보았을 때 당초의 기대, 실제 경험, 지불한 직간접적 비용 등 여러 요소들에 의해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결정되고, 유사한 만족도를 나타내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요소들 간의 상이한 결합에 따라 대학에 대한 충성도는 다르게 형성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대학 신입생의 중도탈락 결정요인을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한 이은정·이정훈(2021)의 연구에서 중도탈락의 여섯 개 중요 결정요인 중 교육만족 요인들은 하위 요소 두 개(5위와 6위)만 포함되었고, 상위 네

4 ❖ 2022년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고등교육

개 요소는 정서안정성, 경제적 여건, 전공진로에 대한 확신, 대학 선택 만족도 등 대학적응요인들이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여건이 좋을수록 중도탈락 가능성이 높아져 사회 변화를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등록금이나 장학금 관련 만족도가 가장 낮거나 우선 개선영역으로 보고되었고(김미라·황덕순, 2004; 노혜란·최미나, 2008; 이경오, 2000; 신소영·권성연, 2012; 홍은숙, 2001),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국내 모든 대학들이 2020년 1학기부터 전면적인 비대면 수업을 시작했을 때에도, 대다수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 혹은 환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조지수·배정인, 2021). 학생의 경제적 여건이나 등록금 수준 등은 대학교육의 가성비에서 경제적 요인이 끼치는 복잡한 효과를 암시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같은 교육서비스 밖의 외부요인들도 학생의 소비자 만족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급속도로 악화된 지방과 수도권 지역의 경제사회적 격차나 그로 인한 지방대의 전반적 위기 등의 요인들도 학생이 대학교육에 부여하는 가치와 그것의 평가 이후에 취하는 행동(중도탈락과 같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학교육에서의 소비자 만족은 단순히 교육서비스의 개별 구성요소들에 대한 사용 경험의 총합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대학생이 대학에 가져오는 목표나 기대, 그것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의 규모, 그 과정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요인,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직접 경험 등이 구성하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복잡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다 전략적인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대학교육의 가치구조: 성과와 비용

교육소비자의 입장에서 대학교육의 가치(value)를 탐색하는 연구는 주로 학생을 ‘소비자(consumer)’로 인식하는 접근방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의 소비자주의(consumerism)는 고등교육이 높은 등록금을 요구하는 사립대학교 위주로 운영되는 국가들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Ng & Forbes, 2009; Tomlinson, 2018).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지출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자신이 받은 교육서비스가 지출한 비용에 합당한 질을 내포하고 있거나, 적절한 성과, 즉 ‘가성비(value for money)’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시되기 쉽다(Tomlinson, 2018). 무엇보다 대학졸업장이 노동시장에서 예전같은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비슷한 대학, 전공, 학위과정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가성비가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정부와 대학은 교육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률이나, 교육과정의 세부정보들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학의 책무성과 질 관리의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대학교육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 특히 사유재로서의 가치를 보다 체계적 방식으로 계산해 보거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치의 복잡한 내부구조를 탐색하는 국내외 연

구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루미나 교육재단(Lumina Foundation)은 2019년 발간한 ‘변화하는 고등교육의 가치방정식’이라는 보고서에서 대학교육의 가치를 ‘비용 가치(cost value)’와 ‘진로 가치(career value)’의 두 축으로 나누어 고등교육 내의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를 비교하였다(Strada Education Network and Gallup, 2019). 2000년 이후 고등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18세부터 65세 사이의 일반인 94,693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위과정 중에서는 대학원 과정과 직업교육과정, 전공계열 중에서는 보건의료계열과 공학계열이 두 차원의 가치 모두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으로부터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Woodall et al.(2014)은 일반적인 서비스 품질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대학교육 서비스의 순가치(net value)의 결정요인을 서비스 결과(고객의 성과), 서비스 특징, 가격, 기타 부대 비용 등 네 가지로 분류한 후, 대학생들이 평가하는 대학의 순가치 및 그것의 결정요인 네 가지가 교육 만족도와 타인에 대한 추천 의사에 이들이 끼치는 영향력을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소비자를 위한 성과 • 실질적 성과(지식, 기술, 이해 등) • 사회적 성과(우정, 사회적 지위, 다른 문화 경험, 삶의 경험 등) • 전략적 성과(학위, 취업 기회, 네트워킹 기회, 진로 기회 등) • 개인적 성과(자아실현, 자기신뢰, 독립성, 인간적 성숙, 부모님 등 중요한 타인의 기쁨 등)	서비스의 특징 • 캠퍼스 편의시설(식당 및 카페, 은행, 교통, 기숙사 등) • 캠퍼스 시설 및 주변 인프라(도심 캠퍼스, 문화적 다양성, 체육시설, 개인적 자유, 학생 노조) • 학습 이외의 지원 서비스(개인상담, 학자금 지원, 학생 노조, 건강지원센터, 외국인학생지원센터) • 학업 지원 서비스(도서관, 어학센터, 인터넷, 조교, 학사행정서비스) • 진로 지원 서비스(인턴십, 커리어지원센터)
서비스의 가격 • 등록금	통합 및 관계 비용(경제/사회/심리적 부대비용) • 기회비용(노동경험 및 그로 인한 수입, 여행 및 유희, 결혼 등 안정적 관계 형성 등의 지연이나 포기) • 생활비(임대료,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 • 노력(대학공부, 아르바이트, 통학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 학습관련 비용(책값, 문방구, 인터넷 사용료 등) • 심리적 비용(학업스트레스, 향수병, 인간관계 스트레스, 자신과 주변의 기대 등) • 기타 비용(개인생활의 제한,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범죄 예방 노력, 문화적/사회적 편견 극복 등)

[그림 1] 대학교육의 이상적인 가치 구조모형(Woodall et al., 2014: p.55)

다음의 [그림 1]은 Woodall et al.(2014)이 서비스 품질 모델을 대학교육에 적용시켜서 파악한 네 가지 가치 결정요인들의 세부 사항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들이 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의 순가치에 끼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네 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미쳤고, 그 중 ‘가격’, 즉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등록금 수준의 적절성(Is the price fair?)이 가장 큰 효과를 끼쳤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순가치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도 교육만족도와 타인에 대한 추천 의사 모두에 유의한 수준의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oodall et al.(2014)의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경험의 여러 요소들을 대학생이 체감하는 대학교육의 가치와 연결함으로써 학생 시각의 대학의 가치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교육의 순가치나 성과, 가격, 서비스 특징, 부대비용 등의 요소들을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만 조사한 후 그것들이 종속변수들에 끼치는 영향력을 단순 분석했고, 특정 대학 하나만을 사례로 선정하여 표집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제한하는 등의 한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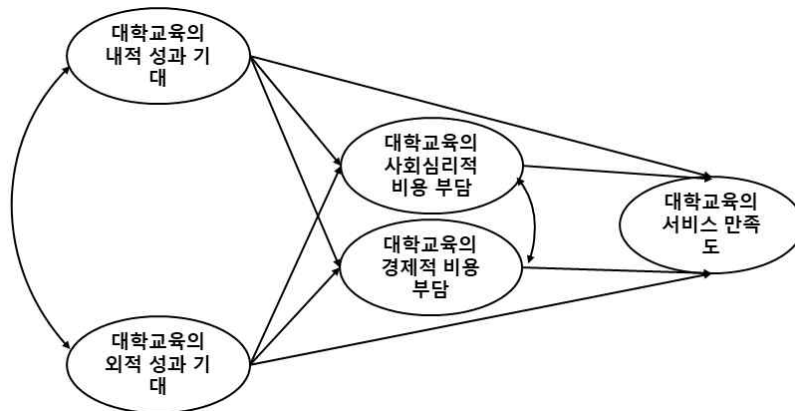
국내 연구 중에서 이와 비슷한 접근방식을 취한 연구로는 김미라·황덕순(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학생의 소비자 만족이라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변수로서 학생들이 대학교육에 거는 기대(핵심 기대와 부가 기대)와 지각된 성과(핵심 성과와 부가 성과), 그리고 이 둘 간의 불일치 정도를 설정하고 기대와 성과가 둘 사이의 불일치를 매개로 하여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끼치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표본을 국립대와 사립대와 나누어 각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과 효과크기 등을 비교한 결과, 국립대의 경우 학습시설, 행정서비스, 비용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성과가 소비자 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반면, 사립대의 경우에는 수업 및 교수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핵심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성과와 기대-성과 불일치가 부가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만족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가계 소득이나 대학교육에 거는 핵심 목표 등에 따라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역내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국립대와, 등록금 수준은 높으면서 다양한 특성화 분야를 가지는 사립대 사이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김미라·황덕순(2004)의 연구는 아직까지 대학졸업장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높았던 2000년대 중반에 수행된 탓인지, 대학교육의 비용 측면은 소비자 만족모형에서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었다.

이상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소비자인 학생의 관점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가치를 탐색할 때 유무형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단순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 대학교육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 그리고 대학생이 대학교육에 기대하는 다양한 성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시도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가치로 정의하되, 그 안에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와 비용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가성비로서의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고자 한

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경제적·사회심리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매개로 하여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림 2]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소비자 만족으로서의 가치가 구성요소들과 그 형성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본 연구의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1. 표본

본 연구의 표본은 현재 13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328명이다. 전체 표본 중 남학생은 총 453명으로 34.1%를 차지했고, 여학생은 866명으로 65.2%에 달했다. 연구자들은 지방대 6개(건양대, 대구대, 부산외대, 순천향대, 전남대, 한동대)와 수도권대 7개(고려대, 국민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등 총 13개 대학을 주요 연구 대상 대학으로 선정하고, 해당 대학 교직원들을 통해 2021년 12월 3일부터 15일 사이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지방대 학생 1,043명(78.5%)과 수도권대 학생 285명(21.5%)이 조사에 최종 참여하였다.

<표 2> 설문조사 참여 학생 현황

성별	여자	866명(65.2%)	결측치	9명(0.7%)
----	----	-------------	-----	----------

	남자	453명(34.1%)		
대학 소재지	지방대	1,043명(78.5%)	수도권대	285명(21.5%)
전공계열	인문계열	307명(23.2%)	공학계열	255명(19.3%)
	사회과학계열	256명(19.3%)	예체능계열	52명(3.9%)
	상경계열	101명(7.6%)	의약약학보건계열	53명(4.0%)
	사범계열	58명(4.4%)	기타(융합전공) 계열	3명(0.2%)
	자연과학계열	239명(18.1%)	결측치	4명(0.3%)
	소계	1,328(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Woodall et al.(2014)이 제안한 대학교육의 가치 구조모형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교육의 성과와 대학교육의 사회심리적 비용(부대비용), 대학교육의 경제적 비용, 교육서비스 만족도 등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별 설문문항의 내용은 [그림 1]에 포함된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되, 한국 대학의 맥락과 거리가 있는 요소들은 제외하였다.

<표 3> 본 연구의 설문문항

영역	문항	응답 방법
대학 교육의 성과	대학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길러주는 곳이다.	Likert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매우 동의함)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은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학 졸업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 필수조건이다.	
	대학졸업장은 결혼, 친구관계, 기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 중요하다.*	
	대학은 좋은 친구와 선배, 교수님과 같은 양질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곳이다.	
	대학졸업장은 내가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해주는데 있어 중요하다.*	
	대학 졸업장은 나에게 기본적인 자신감을 만들어 준다.	
	대학 졸업장은 나를 독립적 인간으로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대학 졸업은 나의 성숙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대학 교육의 사회 심리적 비용	교육을 받느라 지불한 각종 기회비용 (대학생활로 직장생활, 여행, 놀이 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	Likert 5점 척도(1= 전혀 부담이 안됨 5= 매우 부담됨)
	대학교육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외로움, 각종 걱정 등	
	대학생활에 쏟아야 하는 노력 (공부시간 및 학습량, 아르바이트 하기, 친구 사귀기 등)	

경제적 비용	당신은 대학교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 (등록금)	
	대학교육을 위한 추가 생활비용 (거주비, 교통비, 식사비, 통신비 등)	
교육서 비스 만족도	교수, 교육과정 및 학습지원 서비스	Likert 5점 척도(1= 전혀 만족하지 않음, 5= 매우 만족함)
	진로 지원 서비스	
	캠퍼스의 시설 및 주변 인프라	
	학습 이외의 지원(상담, 장학금, 건강지원 등)	

*: 최종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제외됨

네 개 요인들의 설문문항들 간의 신뢰도를 Cronbach's α 를 구하여 확인하였을 때, 대학교육의 성과는 .872, 교육서비스 특징 만족도는 .766, 대학교육의 사회심리적 비용(부대비용)은 .780, 대학교육의 경제적 비용은 .631 등의 신뢰도 지수를 나타냈다. 대학교육의 경제적 비용의 신뢰도 지수가 다소 낮았으나, 이 요인의 측정변수가 2개뿐임을 감안하여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대학교육의 성과는 총 10개 변인이어서 2개 이상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개 요인이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 요인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은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이다'와 '대학 졸업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 필수조건이다'가 속했고, 두 번째 요인에는 나머지 8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 요인에 포함된 2개 문항들이 모두 대학 졸업을 '사회 진출 및 일자리를 얻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외적 성과'로, 두 번째 요인은 '내적 성과'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내적 성과 요인에 포함된 8개 문항 중 '대학졸업장은 결혼, 친구관계, 기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있어 중요하다'와 '대학졸업장은 내가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해주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두 잠재요인들에 대한 요인적재치에 차이가 매우 근소하여, 측정모형에서 최종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대학의 성과에 대한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1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대부분 선행연구들의 기준³⁾을 벗어났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2요인 모형은 χ^2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확인적 요인분석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 TLI, CFI, NNFI, RMSEA 등이 사용된다. 이 중 χ^2 는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절대적, 상대적 적합도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도를 판정해야 한다. Kline(2011)은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는 .90 이상일 때, TLI도 .90(Bentler & Bonett, 1980) 혹은 95 이상(Hu & Bentler, 1999) 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제안하였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 이하일 때 매우 좋은 적합도로, .05~.08 사이이면 수용할 만한 좋은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평가된다(Browne & Cudeck, 1993; Kline 2011에서 재인용)

<표 4> 대학의 성과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X^2	TLI	CFI	RMSEA
1요인 모형	436.347***($df = 20$)	.787	.882	.125
2요인 모형	464.656***($df = 19$)	.966	.982	.050

*: $p < .05$, **: $p < .01$, ***: $p < .001$

대학의 비용도 1요인 모형과 2요인 모형을 구성해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는데 1요인 모형보다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약간 더 좋았으나, 여전히 TLI와 RMSEA 값이 좋지 않아, 사회심리적 비용의 측정변인 중 기회비용을 제외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사회심리적 비용의 다른 측정변인들은 현재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학생들에 투입하는 노력이나 감내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는 반면, 기회비용 변인은 말 그대로 대학교육을 받는 대신 얻을 수 있는 시간이나 수입에 대한 아쉬움을 측정하고 있어 앞의 두 측정변인과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TLI와 RMSEA 값이 일반적인 좋은 적합도 기준에 들어와 앞으로의 분석에서 기회비용 변인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표 5> 대학의 비용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X^2	TLI	CFI	RMSEA
1요인 모형	214.241***($df = 5$)	.732	.911	.178
2요인 모형	147.957***($df = 4$)	.769	.938	.165
수정된 2요인 모형 ^a	1.978***($df = 1$)	.994	.999	.027

*: $p < .05$, **: $p < .01$, ***: $p < .001$

a: 2요인 모형에서 기회비용에 대한 문항을 삭제한 모형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PASW v. 18.0을 통해 표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의 준비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어 AMOS v. 18.0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와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경로계수의 모수들은 상관행렬을 투입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추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는 X^2 의 유의성 검증 결과와 함께 $TLI \geq .90$, $CFI \geq .90$, $RMSEA \leq .080$ 등을 구조모형 적합도 수용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대학교육의 사회심리적 비용 및 경제적 비용이 대학교육에 대한 두 가지 성과에 대한

기대와 교육서비스 만족도 사이의 매개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지방대 학생과 수도권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다집단 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IV. 분석

1. 기술통계

Kline(2011)에 따르면 구조방정식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가 일변량 정규성(univariate normality) 조건을 충족시키고, 지나친 다변량 공선성(multivariate collinearity)을 보이지 않으며, 결측치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표 5>와 같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6개 측정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값이 각각 절대값 3과 7 이하여서 일변량 정규성 조건을 만족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기술통계분석 및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	.638															
3	.269	.326														
4	.285	.312	.372													
5	.369	.405	.339	.361												
6	.339	.369	.388	.367	.527											
7	.272	.344	.335	.382	.496	.421										
8	.380	.431	.476	.473	.528	.582	.469									
9	-.042	-.013	-.135	-.153	-.080	-.166	-.011	-.117								
10	-.048	-.039	-.173	-.147	-.075	-.137	-.019	-.127	.692							
11	-.057	-.080	-.138	-.062	-.097	-.121	-.004	-.104	.550	.494						
12	-.019	-.082	-.079	-.032	-.031	-.035	-.024	-.028	.348	.286	.463					
13	.187	.211	.414	.358	.248	.269	.259	.381	-.209	-.206	-.148	-.168				
14	.147	.154	.371	.297	.202	.269	.231	.333	-.201	-.152	-.156	-.172	.628			
15	.112	.156	.249	.186	.194	.216	.249	.210	-.203	-.129	-.188	-.148	.394	.396		
16	.149	.194	.290	.249	.199	.229	.246	.268	-.211	-.184	-.199	-.133	.413	.471	.475	
<i>M</i>	3.681	3.795	3.696	3.970	3.632	3.450	3.942	3.786	3.392	3.316	3.465	3.023	3.678	3.580	3.392	3.396
<i>SD</i>	1.038	.968	.870	.830	.983	1.029	.848	.909	1.092	1.080	1.039	1.088	.796	.844	1.045	1.005
왜도	-.622	-.701	-.619	-.628	-.596	-.371	-.492	-.591	-.391	-.328	-.473	-.108	-.553	-.310	-.318	-.346
첨도	-.181	.167	.439	.310	.104	-.346	.042	.206	-.508	-.541	-.346	-.689	.619	.071	-.497	-.239
지방대	3.660	3.769	3.693	3.915	3.550	3.451	3.904	3.759	3.041	2.687	2.546	2.876	3.698	3.612	3.410	3.398
수도권대	3.757	3.890	3.704	4.172	3.929	3.446	4.083	3.886	2.743	2.674	2.495	2.824	3.603	3.464	3.325	3.390
<i>t</i> -검정	-1.397	-1.873	-.184	-4.663	-5.944	.062	-3.353	-2.089	4.122	.185	.737	.750	1.802	2.636	1.217	.120

1: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은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 2: 대학 졸업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 필수 조건, 3: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길러주는 곳, 4: 대학은 좋은 친구와 선배, 교수님과 같은 양질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곳, 5: 대학 졸업장은 나에게 기본적인 자신감을 만들어 줌, 6: 대학 졸업장은 나를 독립적 인간으로 만드는 토대, 7: 내가 대학을 졸업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 8: 대학 졸업은 나의 성숙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 9: 대학교육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외로움, 등록금 걱정 등, 교수, 10: 대학생활에 쏟아야 하는 노력 (공부시간 및 학습량, 아르바이트 하기, 친구 사귀기 등), 11: 대학교육을 위한 추가 생활비용 (거주비, 교통비, 식사비, 통신비 등 12: 당신은 대학교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 (등록금) 13: 교육과정 및 학습지원 서비스 만족도, 14: 진로 지원 서비스 만족도, 15: 캠퍼스의 시설 및 주변 인프라 만족도, 16: 학습 이외의 지원(상담, 장학금, 건강지원 등) 만족도).

16개 측정변인들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수 역시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 연구자들이 사용한 Amos 버전 18.0에서는 FIML과 부트스트래핑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EM(expectation maximization) 방법을 통해 결측치를 처리하였다⁴⁾. 다음으로 추후

4) 결측치를 내포하고 있는 케이스를 일괄적으로 삭제하거나 단순한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결측치가 무선으로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수 추정치의 정확성을 해칠 수 있

대학의 소재지가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서 일종의 조절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16개 측정변인들에 대한 독립집단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의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학교육의 내적 성과에 대한 기대 여섯 개 중 네 개 변인에서, 그리고 대학교육의 비용 부담감과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각 한 개 측정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지방대 학생들은 수도권대 학생들에 비해 대학교육의 두 종류의 성과에 대해 낮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고, 대학교육의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교육서비스 만족도 모두에서 수도권대 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구조방정식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표 6>과 같이 상당히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X^2 은 464.656(df = 94, $p < .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X^2 검증의 영가설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큰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가 평가기준으로 삼은 TLI(.935), CFI(.950), RMSEA(.054, .050~.059) 등 다른 적합도 지수들은 모두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조모형이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의 구조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X^2	df	TLI	CFI	RMSEA
464.656***	94	.936	.950	.055

*: $p < .05$, **: $p < .01$, ***: $p < .001$

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다섯 개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모수 추정치(요인 적재치)는 <표 7>과 같다. 16개 측정변인들의 요인 적재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잠재요인들 간에 설정한 여덟 개 경로계수의 모수 추정치의 유의성과 크기를 확인해 보았을 때 [그림 8]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전체 여덟 개 중에서 ‘대학교육의 외적 성과 기대 → 경제적 비용 부담’과 ‘사회심리적 비용 부담 →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경로계수들은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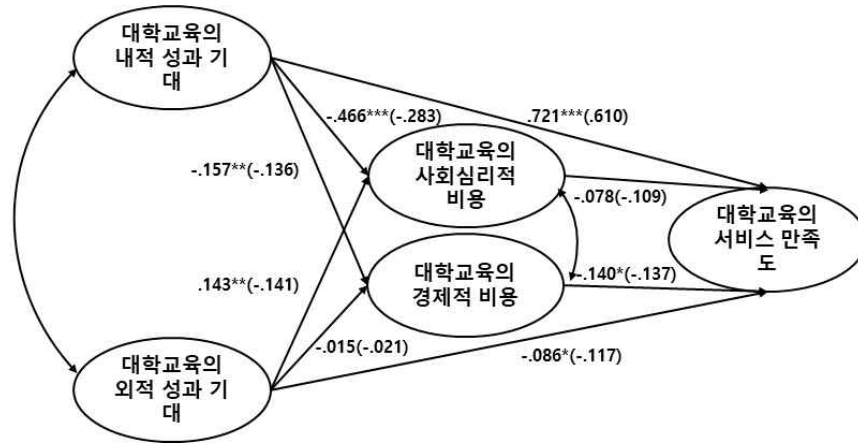
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은 표본 데이터의 다른 정보(평균이나 분산 등)에 기반하여 결측치를 추정, 대체하는 EM (expectation-maximization) 방식이나, 결측치를 내포한 케이스를 삭제하지 않고 전체 케이스들을 결측치 발생 패턴에 따라 몇 개의 하위 그룹으로 나누어 하위 그룹별 관련 통계 정보를 도출하여 전체 모수를 추정하는 FIML(Full-informationmaximum likelihood) 등의 대안적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Kline, 2011: 57~59)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여섯 개 경로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여섯 개 중 ‘외적 성과 기대 → 사회심리적 비용 부담’과 ‘외적 성과 기대 →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계수는 음수로서, 외적 성과에 대한 학생의 기대가 강할수록 사회심리적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한편,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반대로 대학교육이 가져다 주는 내적 성과에 대한 학생의 기대가 높을수록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경제적 비용이나 사회심리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들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인	측정변인	요인 적재치
대학교육의 내적 성과 기대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길러주는 곳이다.	1
	대학은 좋은 친구와 선배, 교수님과 같은 양질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곳이다.	.949***
	대학 졸업장은 나에게 기본적인 자신감을 만들어준다.	1.301***
	대학 졸업장은 나를 독립적 인간으로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다.	1.407***
	내가 대학을 졸업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1.021***
	대학 졸업은 나의 성숙과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1.405***
대학교육의 외적 성과 기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 졸업은 사회 진출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1
	대학 졸업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데 있어 필수조건이다.	.926***
사회심리적 비용 부담	대학교육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외로움, 등록금 걱정 등	1.146***
	대학생활에 쏟아야 하는 노력 (공부시간 및 학습량, 아르바이트 하기, 친구 사귀기 등)	1
경제적 비용 부담	당신은 대학교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 (등록금)	1
	대학교육을 위한 추가 생활비용 (거주비, 교통비, 식사비, 통신비 등)	1.485***
교육서비스 만족도	교수, 교육과정 및 학습지원 서비스	1
	진로 지원 서비스	1.075***
	캠퍼스의 시설 및 주변 인프라	.963***
	학습 이외의 지원(상담, 장학금, 건강지원 등)	1.02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모수 추정치(괄호 안은 표준화 계수임)

나. 효과 분해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여 대학교육의 내적 성과와 외적 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가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며 대학교육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심리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9>는 잠재변인들 간의 총 효과와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분포를 형성하여 유의수준 .05에서 각각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두 종류의 대학의 성과변인들이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끼치는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대학교육의 내적 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대학교육의 경제적·사회심리적 비용들을 경유하거나, 경유하지 않을 때 모두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끼치는 것에 반해, 외적 성과에 대한 기대는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직·간접 경로를 통해서도 모두 부정적 효과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적 성과에 대한 기대는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주로 직접적 경로를 통해 유의한 부정적 효과를 끼치는 반면 비용을 매개로 한 간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성과 기대 → 교육서비스 만족도'의 간접효과가 95% 신뢰수준에서 $-.013 \sim .014$ 의 신뢰구간을 나타내 0을 포함함). 즉, 대학교육의 외적 성과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질수록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데 이 때 대학교육의 비용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적 성과 기대가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끼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아가 두 가지의 비용 중 어떤 것이 더 유의하면서 큰 매개효과를 끼치는지를 팬텀변수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표 9>와 같이 두 종류의 비용 중에서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매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성과 기대가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끼치는 전체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효과분해를 해 보았을 때 사회심리적 비용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매개효과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효과 분해

경로	$b(\beta)$	SE	p
내적 성과 기대 → 교육서비스 만족도(총 효과)	.781(.66)	.054	.004
직접 효과	.723(.61)	.056	.003
간접 효과	.058(.045)	.019	.002
사회심리적 비용 부담 경유	.036(.031)	.022	.074
경제적 비용 부담 경유	.022(.019)	.014	.017
외적 성과 기대 → 교육서비스 만족도(총 효과)	-.095(-.13)	.046	.005
직접효과	-.085(-.117)	.035	.007
간접효과	-.009(-.012)	.016	.433
사회심리적 비용 부담 경유	-.011(-.015)	.008	.048
경제적 비용 부담 경유	.002(.003)	.007	.605

다. 다집단 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들이 대학의 소재지 집단에 따라 효과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면에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대 학생집단(N=1,043)과 수도권대 학생집단(N=285) 간의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은 잠재변인들 간의 8개 경로계수들의 통계적 유의성과 효과크기가 지방대 학생집단과 수도권 학생집단 사이에 1차적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모수 추정치

경로계수			지방대 학생	수도권 학생
			$b(\beta)$	$b(\beta)$
내적 성과 목표 →	사회심리적 비용부담		-.476(-.301)***	-.394(-.203)*
내적 성과 목표 →	경제적 비용 부담		-.183(-.168)**	-.049(-.034)
외적 성과 목표 →	사회심리적 비용부담		.115(.110)	.227(.249)*
외적 성과 목표 →	경제적 비용 부담		-.017(-.024)	.007(.010)
사회심리적 비용부담 →	교육서비스 만족도		-.067(-.095)	-.104(-.137)
경제적 비용 부담 →	교육서비스 만족도		-.122(-.118)*	-.196(-.195)
외적 성과 목표 →	교육서비스 만족도		-.054(-.073)	-.160(-.232)*

내적 성과 목표 →	교육서비스 만족도	.685(.611)***	.888(.604)***
------------	-----------	---------------	---------------

*: $p < .05$, **: $p < .01$, ***: $p < .001$

경로계수의 부호가 말해주는 효과의 방향성은 두 집단에서 대체로 일치했으나 외적 성과 목표가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에 끼치는 영향력의 경우 지방대 학생집단은 부적 효과를, 수도권 학생집단은 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영향력의 방향이 같은 경로계수들 간에도 표준화계수 β 의 크기가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지방대 학생집단에서는 내적 성과 목표가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나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끼치는 효과가 컸고, 수도권 학생집단에서는 외적 성과 목표의 효과가 더 컸다. 이와 같은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인지, 즉 소속 대학의 소재지가 대학교육의 목표,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교육서비스 만족도 등의 구조적 관계에 일종의 조절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에서 대학의 소재지가 유의한 조절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구조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조모형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해야 한다. 측정동일성은 각 잠재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을 제약한 측정동일성모형을 구성한 후, 측정동일성모형이 기저모형(요인부하량을 제약하지 않았던 원모형)에 비해 모형의 적합도 면에서 나빠지지 않았을 때 성립했다고 판단한다. <표 10>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측정동일성모형의 적합도는 기저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모형 간의 X^2 차이(ΔX^2)는 .29.68로 자유도 11일 때의 유의수준 .05의 임계치인 19.675보다 커서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ΔX^2 검증이 표본크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Anderson & Gerbing, 1988), 이와 함께 CFI에서 .01 이하 차이(Cheung & Rensvold, 2002)와 RMSEA에서 .015 이하의 차이(Chen, 2007)는 유의하지 않은 차이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의 측정동일성모형의 CFI는 .003 감소했고, RMSEA는 전혀 차이가 없어서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모형의 적합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모형의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으므로 다음 단계로 구조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잠재변인들의 경로계수 간 차이 검증(C.R. difference test) 결과가 가장 작은 경로계수부터 순차적으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후, 바로 앞 모형과 새로운 모형 간의 ΔX^2 가 유의한 정도(자유도가 1 증가할 때의 ΔX^2 이 유의수준 .05에서의 임계치인 3.84 이상일 때, 또한 ΔCFI 가 .01 이상이거나 $\Delta RMSEA$ 가 .015 이상일 때 유의하다고 판단함)임을 확인하게 된다. 두 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 차이가 유의한 수준이면, 그런 차이를 만든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10>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가 설정한 잠재변인들 간의 모든 경로계수를 순차적으로 제약한 모든 모형들의 적합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지방대 학생집단과 수도권대 학생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경로계수는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표 9>에 나타난 두 집단들의 경로계수 간의 차이는 표본에 따른 우연한 결과일 뿐 모수에서는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한 대학교육의 목표와 투입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교육서비스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는 지방대 학생과 수도권대 학생 모두에 대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1>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

모델	χ^2	df	$\Delta\chi^2$	TLI	CFI	RMSEA	판정
기저모형	593.439	188		.931	.946	.040	채택
측정동일성모형	623.119	199	29.680	.932	.943	.040	채택
사회심리적 비용 → 교육서비스 만족도	623.433	200	.314	.932	.943	.040	채택
외적 성과 기대 → 경제적 비용 부담	623.577	201	.144	.933	.944	.040	채택
외적 성과 기대 → 사회심리적비용 부담	625.023	202	1.446	.933	.943	.040	채택
경제적 비용 부담 → 교육서비스 만족도	627.384	203	2.361	.933	.943	.040	채택
외적 성과 기대 → 교육서비스 만족도	631.017	204	3.633	.933	.943	.040	채택
내적 성과 기대 → 경제적 비용 부담	633.539	205	2.522	.933	.943	.040	채택
내적 성과 기대 → 사회심리적비용 부담	635.316	206	1.777	.933	.943	.040	채택
내적 성과 기대 → 교육서비스 만족도	635.551	207	.235	.934	.943	.040	채택

V. 논의와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는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의 성과나 소요 비용에 대해 형성하는 기대나 인식 등이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분석의 핵심 결과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이 학생에게 가져다 줄 성과 중에서 내부적 성장 및 발달과 관련된 내적 성과에 대한 기대는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개선시키고 대학교육의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교육을 사회 진출 및 일자리 찾기의 필수조건으로 보는 학생들의 인식과 기대는 대학교육에 드는 사회심리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교육서비스 만족도도 악화시켰다. 이는 대학에서의 전공선택의 동기와 교육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잘 부합된다. 박우정·최바울(2020)의 연구는 취업 가능성이나 사회적 지위, 성역할 등 외적 동기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나 성숙, 전문적 공부, 가치관 등의 내적 동기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전공만족도는 낮고 중도탈락의사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외적 동기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한 교대 신입생들의 대학적응과정을 질적인 방식으로 분석한 공윤주·이은주(2014)는 취업 가능성, 직업 안정

성, 부모의 권유나 가정형편 등 외적 동기로 교대를 선택한 학생들이 신입생 기간 동안 ‘막연함과 답답함’을 핵심현상으로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취업 가능성이나 사회 진출의 용이성을 대학교육의 핵심성으로 보는 경향성이 본질적으로 부모를 비롯한 외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자신의 근본적인 학문적 관심이나 성장 욕구에 대한 성찰을 상대적으로 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을 해석된다. 이러한 상태로 대학에서의 전공공부와 자율적인 대학생활을 시작하면 대학(전공)에 대한 막연한 기대의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면서 신입생들은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교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과 사회심리적 비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유형의 비용 모두 대학교육의 성과 기대와 교육서비스 만족도 사이에서 유의한 수준의 매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우에는 대학교육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그것이 다시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반면, 외적 성과에 대한 기대와 교육서비스 만족도 사이에서는 사회심리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일으켰다. 즉, 외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비용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고, 이것이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이다. 이 때 경제적 비용은 이 두 변수 간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했다. 즉, 대학교육의 내적 성과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인식을 통해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외적 성과에 대한 기대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둔감하나, 사회심리적 비용에는 더 민감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핵심목적을 취업 가능성 및 사회진출 역량의 강화에 두는 학생들은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에서의 학업을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몰입하거나 그 과정에서 학문적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 대학에서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나 사회적 활동들도 학업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보다는 또 다른 취업 준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현실세계의 경험이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위의 두 가지 분석결과의 해석을 확장시켜 볼 때 한국 대학생들에게 대학교육을 위해 지불하는 등록금은 아직까지는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변인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대학과의 등록금 책정협상을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삼고 이 과정에서 점점 더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주장하려 노력하는 추세이다. 학생이 과연 소비자인가, 혹은 학생을 소비자의 자리에 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접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많지만, 적어도 대학생들이 적극적인 행위자(agent)로서 교육의 비용 책정에 참여하려 하는 자세는 분명 바람직하다. 하지만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등록금은 여전히 대학교육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경험을 하는데 투자할 만한 돈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본 연구에서

대학교육의 경제적 부담은 교육서비스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정 영향을 끼치지만 대학교육의 내적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 경제적 비용의 부담감은 완화되고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향상되었다. 심지어 대학교육의 외적 성과에 집중하는 학생들에게도 경제적 비용은 교육서비스 만족도와 연결하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다시 말해, 빨리 대학교육을 마치고 취업시장에 진출하려는 학생들도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소속대학의 교육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요약하자면 대학의 입장에서 등록금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에 대응하여 등록금을 낮춘다 해서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은 적고, 오히려 학생들의 내적 성과에 대한 기대를 진작시키는 것이 교육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취창업과의 연결성을 높이려는 학생과 학부모, 기타 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지만, 그런 요구의 이면에는 대학에서 고등학문의 경험을 통한 내적 성장과 사회적 자아의 성숙 등을 기대하는 마음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적 성과를 기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대학교육에 투입해야 하는 학생 개인의 시간과 노력, 다양한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스트레스도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학적응의 스트레스는 대학교육의 외적 성과에 대한 학생 개인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업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원치않는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우정·최바울, 2020).

대학의 가성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입학과 대학의 선택이 여전히 한 개인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이벤트이며, 개인은 대학에 대해 복잡한 구조의 가치를 형성함을 보여준다. 대학은 4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 동안 많은 경제적 투자를 요구하며, 졸업 후에는 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의 일부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학의 가성비를 계산하는 것은 한층 더 어려워진다. 본 연구는 그 계산 과정에서 대학생이 대학교육에 거는 기대 혹은 목표가 생각보다 강력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의 다른 서비스들에 대해 청년세대가 적용하는 가성비 산출방법과 전통적인 대학의 미션 및 활동 사이에서 학생에게 필요하고 유리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시도의 시작이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대학의 가성비 계산에 있어 교육서비스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함에 따라 가성비 계산 과정의 일부만을 탐색하였다. 소비자의 가성비 계산은 사용 중단(중도탈락행위나 의사)이나 재구매(학업지속), 주변 지인들에 대한 추천 등의 다른 행동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심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가성비의 구조형성이나 계산의 1차적 단계를 탐색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내 200여 개 대학 중에서 13개 대학들을 골라 연구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커지고, 그 중 대학 간의 격차가 가장 빠르게 확장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가성비에 대한 학생 인식을 지방대와 수도권대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는데,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진행형인 지방대의 위기를 감안할

때 표본을 더 늘리게 된다면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들은 대학교육의 가성비 구조가 학생의 성별이나 전공계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지만 대학교육의 외적 동기 중 하나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생들의 대학 및 전공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대학교육의 가성비 형성에도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문이과 교차모집과 그로 인한 문과 계열 학생 수의 급감 등도 앞으로 대학교육의 가성비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생이 대학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한 보다 풍성한 탐색이 이어지기 고대한다.

참고문헌

- 권혁기·김병주. (2021). 대졸자의 대학교육만족도가 직무일치를 매개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다중집단분석의 적용. *교육재정경제연구*, 30(2), 51-79.
- 공윤정·이은주. (2014). 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대학생의 진로적응과정. *상담학연구*, 15(5), 1771-1789.
- 김경희. (2011). 지방대학생들의 학업중단 영향요인과 대학생생활만족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8), 378-387.
- 김난도·전미영·최지혜·이향은·이준영·이수진·한다혜. (2020). *트렌드 코리아 2021: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21 전망*. 미래의 창.
- 김미라·황덕순. (2006). 대학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만족 모델구축. *가정과 삶의 질 연구*, 24(6), 17-31.
- 김은영·방상옥. (2022) 대학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과 학생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및 개선 : S대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2), 517-541.
- 김희삼·이삼호. (2008). *고등교육의 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한국개발연구원.
- 노혜란·최미나. (2008) 학생의 중도탈락 영향 요인 분석을 통한 고등교육 인적자원개발 정책 방안: S 대학 사례 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발연구*, 11(1), 89-107.
- 박용석(2010). *대학교육 서비스 만족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우정·최바울. (202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에 따른 중도탈락의도,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 학업성취도 차이. *청소년학연구*, 27(7), 183-209.
- 박정원. (2022). *대학 무상교육의 구상*. 서울: 진인진
- 신소영·권성연. (2012). 대학교육 중요도-만족도 분석 및 교육만족도 제고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45), 55-85.
- 신소영·권성연. (2013). 대학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과학연구*, 44(3), 107-132.
- 신소영·권성연. (2014). 학생 특성별 대학교육 만족요인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구 안암교육학연구)*, 20(1), 253-280.
- 양지인·박윤미. (2018). 대학 교육서비스품질이 서비스가치, 추천의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19(5), 17-40.
- 이경오. (2000). *대학교육서비스 마케팅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길재·이정미. (2015). 대학교육 만족도 및 교수학습 성과 영향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3(1), 105-127.

- 이은정·이정훈. (2021). 대학 신입생 중도탈락 예측 요인 분석: S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4), 317-330.
- 송윤정·조규관. (2016). 대학생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61-77.
- 차영란. (2010). 대학생활 만족도가 졸업 후 모교 기부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12(4), 529-554.
- 조지수·배정인. (2021). 코로나 19 로 인한 온라인 강의 형태와 콘텐츠가 학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3), 643-650.
- 홍은숙(2001). *대학생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구전과 대학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
- Brown, M., & Cudeck, R. (1993). *EQS structural equations program manual*. Multivariate Software Inc., Los Angeles.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Douglas, J., Douglas, A., & Barnes, B. (2006). Measuring student satisfaction at a UK university.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 14(3), 251-26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Jongbloed, B. (2003). Marketisation in higher education, Clark's triangle and the essential ingredients of markets. *Higher Education Quarterly*, 57(2), 110-135.
- Kline, R. B. (2011). Convergen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level modeling.
- Ng, I. C., & Forbes, J. (2009). Education as service: The understanding of university experience through the service logic. *Journal of Marketing for Higher Education*, 19(1), 38-64.
- Strada Education Network and Gallup. (2019). *Changing the Value Equation for Higher Education*.
- Shin, J.C., & Harman, G. (2009). New challenges for higher education: global and

Asia-Pacific perspective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0, 1-13.

Woodall, T., Hiller, A., & Resnick, S. (2014). Making sens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as consumers and the value of the university experience.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9(1), 48-67.

Tomlinson, M. (2018). Conceptions of the value of higher education in a measured market. *Higher Education*, 75(4), 711-727.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민병현(청운대학교 교수)

김훈호(공주대 교수)

I. 서론

뉴노멀 시대는 코로나19 이후 등의 큰 사태들을 계기로 비대면 교육의 증가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책임과 자율 등의 평생교육의 핵심 가치가 더욱 강조된다고 보았다. 뉴노멀 시대에는 다양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평생교육이 중요하며, 이는 교육 체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OECD, 2019).

이러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미래 역량의 계발을 위한 교육적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의 평생교육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후변화, 바이러스 전파, 소외, 격차, (세대 간·계층 간)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평생교육으로서의 고도화 역량의 가치를 위한 요구가 강조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은 대학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서류 및 면접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평생교육중심대학 육성사업은 2008년 시작하여 2010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선도대학, 2016년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으로 진학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대학 평생교육 수요분석은 정책 소요된 예산 분석, 노동시장관련, 생애주기 직업능력향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득주도 성장이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인용). 교육부는 성인학습자는 고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제14호에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부각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서비스 질과 가치,

신뢰 등을 향상시켜 관계몰입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지속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의 참여지속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잠재적 학습자 즉, 새로운 학습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대학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 성인학습자들에게 평생교육의 서비스 질과 가치, 신뢰, 관계몰입을 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자원 등의 충분한 학습자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의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성인학습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차별대우개선(성인학습자의 동아리 및 학생회 참여), 학사제도의 유연성 강화 및 선택권 보장(졸업요건의 조성 및 선행(학습)활성화 경험인정), 학비지원을 통한 배움의 기회확대, 평생학습자 전형과 재직자전형의 분리, 역량강화를 위한 비학위과정으로 교육프로그램제공(글쓰기, 컴퓨터활용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한 산업맞춤형 프로그램개발등을 들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은 고등교육 분야에 서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고, 소외계층 만을 위한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육, 직업진로 및 경력개발 동기를 가지고 있고, 대학에서 단순히 학위 부여의 기능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생을 직업세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대학평생교육이 보다 확대된다면 생애주기별 목적과 학습배경 등을 고려한 다원화된 형태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교육부인용).

대학의 자원(교수, 전공시설, 정보자원)을 필요한 보다 적극적이고 질적으로 차별화된 비학위과정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성인학습자 특화 비학위과정이 하나의 예이다.

기술진보가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속도이다. 교육과 기술 중에 기술이 앞서간다면 사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정규교육(전통적 교육모형)이고, 둘째는 직장내 재교육이다. 따라서 직장내 재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이다. 평생학습참여 현황조사를 살펴보면 인적숙성에 따른 참여율의 차이를 분석은 기술진보에 취약한 그룹 단순노무직, 조립, 기능직 종사자들은 학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평생학습에 소홀한 구조이다. 기술진보에 취약한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해야 한다. 한국의 평생학습 예산은 2017년 2조 9천억원인데 교육부 예산이 20%, 고용노동부 80%의 예산이다(교육부 자료인용). 교육부는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이 기술진보가 될 때 기업은 사회적능력, 고객상담, 마케팅이 더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한다. 창의력, 사회성,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을 기술로 대체되기 어려운 역량인 일반적인 역량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역량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역량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성인학습자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진단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대학에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대학에서 평생교육이 운영, 제공되는 성인학습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교수 및 교육과정, 교육서비스, 지원 및 제반 서비스, 시설 및 환경 등의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임연옥, 2008). 이에 따라 성인학습자들은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해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서비스 획득을 위해 부담한 비용, 희생 및 노력,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 이익, 혜택 등의 효익을 비교하여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며(이인순, 2012), 성인학습자는 기관에 대한 믿음, 신뢰, 가치, 서비스 신뢰 등으로 대학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Rousseau et al., 1998). 이를 통해 점점 더 평생교육기관 및 담당자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순평가 이상의 가치가 내재된 상대방과 관계가 중요하여 앞으로도 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의지가 생기기도 한다(김용조, 2010). 이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그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는 만족도의 한 형태로 평생학습하고 나아가 자신의 취업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되며(여민구, 2012), 참여수준에 지속의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대학의 성인친화적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서비스, 각종 지원 및 제반 서비스, 시설 및 환경 등의 질을 향상시켜 성인학습자들이 대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하고, 더욱 신뢰 및 신뢰하게 하여 평생학습의 지속적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도 하며, 무엇보다 대학 담당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려고 노력한다. 나아가 학습자들 간에도 관계를 지속하며,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 즉,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참여수준과 지속의도를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연구문제1>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성인학습자의 참여수준 그리고 지속의도 간의 어떠한 인과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3> 성인학습자 참여수준과 지속의도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학평생교육체제 평생교육기관의 변화

가. 대학평생체제 경영 환경의 변화

합리적·효율적 경영의 요구와 위상 변화를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대학평생교육체제 평생교육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들이 기존에 소규모의 비체계적 방식으로 운영되던 것이, 최근 들어 가시적이고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합리적·효율적 경영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규모가 커진 현상에서도 기인한다. 대학의 ‘평생교육’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적 논조들은 교육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평생교육기관들의 책무성강조를 통한 위상 정립을 보다 촉구하고 있다(권대봉, 1996; 이일균, 1999; 최돈민, 2000; Apps, 1988; Knapper & Cropley, 2000; Rubenson & 40 人力開發研究Schuetze, 2000; Schuetze & Slowey, 2000).

글로벌화나 ICT, 지식사회의 급진전, 계속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 급증 등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평생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주어야 할 당위성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둘째, 평생교육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의 양적 확장기를 거쳐, 최근에는 평생교육법 및 동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대학부설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설치 및 변경 신고제가 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셋째, 성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적 요구 증대 및 요구의 다양화를 지적할 수 있다. 다양한 학습요구를 지닌,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는, 학습권을 지닌 모든 사람들이 평생교육의 학습자계층인 것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취향과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원하며, 그러한 대중의개성화(mass individualisation) 현상은 평생교육에 대한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Ben, 2002). 대중의 개성화로 인해 평생학습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도 개별화 된다. 성인학습자들은 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내용과 방식대로의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여하기보다는 학습자로서의 주체성을 스스로가 보다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평생교육기관과 교육부 참여한 30개 대학의 프로그램에 대해 학습자가 소비자의 권리(consumer sovereignty)를 보다 강조하며, 이에 기관이 학습자지향적인 태도를 지니며 능동적으로 변화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넷째, 평생교육기관의 재원확충과 이익센터화가 기관의 경영환경 변화를 촉구한다. 성인교육기관들의 전 세계적 경향성의 하나가 이익센터화인 것과 마찬가지로(Phillips, 1999), 고등교육기관들의 영리화는 시대적 대세이다. 이미 보다 효율적인 경영 구조와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해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aryland, Duke University 등은 모두 상업적 재정보조를 갖추고 있다. 대학내에서의 수입창출에 대한 관심전상에 대학 평생교육기관은 존재하며, 대학학부에서 비교과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수료이후의 특전 등은 수익창출을 위한 하나의 원천으로 사료되는 추세에 있다.

끝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강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 수여되는 증서나 자격증 등의 유용성에 대해 학습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면서 그 가치가 높기를 기대한다. 또한 평생교육법은 다양한 평생학습과정 운영과 평생학습 공급자의 자율성 확대 등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관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Riesman(1981)은 1980년대에는 교육시장의 소비자인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예견하였다. 고등교육시장의 구조가 공급자 시장(seller's market)에서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변모하여 학생소비자주의(Students Consumerism)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이는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책무성이 보다 강조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대학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 대학평생교육은 2008년 시작하여 2022년 현재에는 4년제 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하고 있으며 00학과 과정에 0000명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평생교육체제백서, 2022).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한 대학의 평생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가지고 있다. 성인교육, 순환교육, 계속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을 운영하지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평생교육의 이념(권대봉, 1998)에 얼마나 호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기관경영의 투명성, 기관존재의 목적과 비전, 운영방침과 전문적 경영의 실현 등에서 많이 미흡한 것이 대학의 현주소이다. 교육과정은 많이 개설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허수에 불과하거나, 재정상태 및 운영상태가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서 평생교육기관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다(권대봉, 2022).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질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현장에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 평생교육체제기관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교육환경적 측면에서, 독립적인 대학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시설의 내용적 측면 역시 성인학습자 교육적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소재 대학부설 현황을 조사한 윤성은(2022)의 보고에 따르면, 평생교육을 위한 독립적 건물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27.3%에 불과했다. 더욱이, TV, VTR, LCD프로젝트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도 많으며, 교육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곳도 많지 않다. 교육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된 교육환경도 미흡할 뿐만이 아니라, 야간시간대에 수업을 하는 경우를 비롯해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도나 난방, 휴게 및 편의시설, 편리한 교통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

둘째, 기관운영의 전문성 측면에서, 직원들의 행정전문성, 연구인력과 교강사의 전문성, 기관운영을 위한 확고하고 실체적인 목표나 이념,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 구상 등의 부재 혹은 미흡은 평생교육기관이 성장하는 데에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윤여각, 2019), 자연스레 질경영(quality management)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직원들의 전문성 수준이 높다고 확신하기는 힘들다. 이와 더불어,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경영학적 마인드는 물론 평생교육학적 마인드가 부족한 것도 평생교육기관만의 특성을 강화해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데에 장애가 된다.

셋째, 학습비용과 재정확보 측면에서, 대부분 대학이나 기관 차원에서의 보조나 국가나 외부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교육수혜자 부담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높은 수익이 창출될 경우 그것을 해당 부문의 프로그램 개선에 재투자하거나, 학습자들의 학비 지원 등에 지원하는 경우의 상황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 성인학습자들에게 있어 재정적 부담은 대학에의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졌다(한준상, 2022). 즉 학습비의 부담이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교육프로그램 측면에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에 개설된 과정들은 그 수가 허수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며, 나열식으로 강좌를 개설해 교육의 질에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특성화도 부족하다. 평생교육기관의 생명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른 프로그램을 복제한다든지, 경영상의 계획이나 전략과는 무관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권대봉, 2019). Knowles의 안드라고지(Andragogy) 원리 중에는, 학습에 적합한 물리적·심리적 분위기를 형성할 것, 교육과정의 방향과 교육방법을 계획하는 데에 학습자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 학습요구 진단을 위해 학습자들을 참가시킬 것 등을 포함한다. 내부고객인 성인학습자와 강사진에 대한 반응 및 요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은, 결국 고객인 학습자들의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 교육의 질적 저하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해당 강사의 교수(teaching)전문성이나 주제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못하는 난점,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평가하고 수료증·자격증을 부여하는 상황에서 체계적

인 질 관리가부실하다는 점 역시 존재한다.

Ⅲ. 설문지 개요

1. 설문배경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및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성인학습자의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연구를 통해 대학 고유의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직장인 또는 성인학습자 및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본 조사를 시행하였음

2. 조사 설계

- ☐ 성인학습자의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연구를 위해 본 조사를 실시, 충남지역에 거주 중인 직장인 및 성인학습자를 대상 및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재학생을 조사 실시
- ☐ 조사 참여자들의 응답 편의성을 도모하고 복잡한 설문 작성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응답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접조사 및 웹 기반 설문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완성도를 제고함
- ☐ 조사 진행 상황 및 응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수집된 자료의 에디팅 및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친 후, 통계자료분석을 실시함

[표1] 성인학습자의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개요

조사대상	• 충남지역에 거주 중인 직장인 및 성인학습자
조사기간	• 2022년 05월 16일 ~ 2022년 05월 28일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Web Survey 실시
유효표본	• 충남지역에 거주 중인 직장인 및 성인학습자: 100명(온라인조사) •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재학생: 100명(면접조사)
자료처리 및 분석	• 실시간 Web Survey 모니터링 → 수집된 자료의 에디팅 → 데이터 코딩→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친 후 통계자료 처리(SPSS 23.0)

3. 설문문항 구성

- 성인학습자의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음

2. 설문문항 구성

- 성인학습자의 대학의 평생교육 참여수준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연구를 위해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을 재학생의 설문 문항 구성은 아래와 같음

-참고문헌-

김지삼(2016), “문화예술교육의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가치, 신뢰, 관계몰입 및 재이용 의도 간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조(2009), “관계효익이 관계만족, 관계몰입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명경(2017), “대학평생교육기관의 관계마케팅전략과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 관계몰입 및 참여지속의도 간의 구조적 분석”, 백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오동근·여지숙·최성열(2010),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공공도서관과 문예회관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의 품질과 만족도에 관한 비교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291-307.

여민구(2012), “이러닝 서비스 품질, 만족도, 재이용 의도의 관계 분석”,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행(2011), “지각된 서비스 가치가 관계혜택과 신뢰,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순(2012), “와인교육 서비스 품질 수행도, 서비스 가치, 고객 만족도 및 충성도에 관한 구조적 모형 구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연옥(2008), “노인복지관의 고객충성도에 관한 연구: 고객만족, 서비스 품질, 관계혜택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원균(2005), “관계효익이 장기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뢰와 관계 몰입을 매개변수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ronin, J. & S. Taylor(1992), “Measuring Service Quality: A Reexamin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keting』, 56(July): 56-68.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Project background. Paris: OECD.

Rousseau, D., Sitkin, S., Burt, R., & C. Camerer(1998), “Not so different after all: cross discipline view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William, B., Kalra, A., Staelin, R., & A. Zeithaml(1993), “A Dynamic Process Model of Service Quality: From Expectation to Behavior Intention”, 『Journal of Marketing Reviews』, 30: 7-27.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

-용어정리-

1. 참여지속의도

참여수준: 학습자가 특정한 학습과제에 당면했을 때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지의 기대 정도 또는 목표 수준

지속의도: 사회적 삶에서 행동과 인식의 지속적인 흐름을 말한다. 이러한 견해에서(기든스(Giddens), 1984), 사회적 생활은 '분리된 의도, 원인, 동기의 모음이나 계열'로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그것은 고정된 구조의 산물로서 간주되어서도 안된다. 오히려 구조와 행위자 모두가 역할을 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사회사학자인 브로델(Braudel)의 저작으로부터 차용하여 매일매일의 사회생활의 반복적인 지속성뿐만 아니라 제도의 오랜 지속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다.

참여수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평생교육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 기회를 찾

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연결과 직업적 네트워크를 확대시키기 원한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지역사회에 자신이 받은 것을 환원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들이 개인적/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동시에,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로타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회원들에게 투자할 때 회원들도 로타리에 투자한다.

지속의도는 성인학습자가 대학의 재등록하거나 해당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학습자이 의도를 의미한다. 관계유지, 추천의도

윤여범(2012)은 성인학습자의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관 관련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기관 관련 특성으로 기관배경 요인, 프로그램 요인, 학습 환경 요인, 교육경험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참여 지속 수준과 참여지속 계획 여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안정아(2013)의 연구에서는 대학 평생교육원의 성인학습자 참여지속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학습 환경, 프로그램, 교육기관 내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큰 영향을 주는 순서로 프로그램, 학습 환경, 교육기관 내 관계로 나타났다.

안주석·임근옥(2017)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여가활동의 지속의도를 갖는 노인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였고, 더불어 여가활동의 지속의도를 갖는 노인들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속의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의 참여지속의도는 학습자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정진, 2014). 따라서 성인학습자가 중도 포기했을 경우 발생하는 시간과 에너지, 실패, 좌절, 자책, 낭비 등의 심리적 상실감에 따른 손실이 가족과 사회에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의 입장에서는 신규 학습자 창출의 어려움과 교육기관 이미지 훼손, 교육 참여율 저하 등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요인 이라고 하였다(이숙원, 2002).

평생교육기관의 참여지속의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경희, 김재석(2010), 김지연(2013)은 참여동기에 따라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연구결과 참여동기 유형에 따라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청락(2006)은 교육만족도와 참여지속의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연구결과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만족도는 참여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참여지속의도는대상과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정진, 2014). 그 중 관여도 요인은 교육 분야에서 형식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학부모 관여도와 참여지속의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성인학습자의 관여도를 독립변인으로 보고 참여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을 두었다.